

71호, 2008.1

사람 / 과거는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진다 - 정혜열 고문 / 김슬기

시사 / 2008년 정세와 우리의 과제 / 유영재

특집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해설 / 강정구

자료 / 한(조선) 반도 평화협정(시안)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올바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정정 사업계획을 듣고 나서 / 나영
훈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평통사를 통한 화려한 외출 / 김인숙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와 함께하는 2007 평화카페 / 박석진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고 이상윤 회원 추모시> 사랑하면 안되나요? / 피재현

과제 / 만리포재판 만리포 상륙훈련은 적법한 공무인가? / 오혜란

해외평화운동 / 민족 운동이 다시 절실해졌습니다.- 이행우 선생 인터뷰 / 최성희

| 사람 |

과거는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진다

‘만년 소녀’ 우리는 그녀를 그렇게 부른다. 화사한 모자와 어여쁜 자켓, 곱게 한 화장, 반가이 후배들을 맞아주는 경쾌한 웃음소리. 일흔이 넘은 나이에 ‘소녀’ 소리를 듣는 비결이다. 그 정혜열 선생을 이십대인 서울평통사 김슬기 부장이 만났다. 세대를 초월한 두 사람이지만, 평통사 활동에 열심인 것으로 ‘통’해 보인다.

정혜열 선생의 부친 이야기에서 김슬기 부장은 과거의 역사를 배운다. 또한 현재를 살며 투쟁하는 정혜열 선생에게서 미래를 가늠한다. 현재를 살고 있는 김슬기 부장도 미래의 일을 여는 한 몫으로 그렇게 또 두 사람은 ‘통’하고 있다.

- 편집자 주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법적기한인 2010년에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새해 소망이 “정의구현사회를 위해 이명박 정권을 퇴출하는 것”이라며 힘주어 말씀하시던 정혜열 고문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07년 5월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정혜열 고문의 진실규명신청사건에 대해 ‘(정혜열 고문의 부친)정상윤 선생은 1928년 8월 합법단체인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설립을 통해 항일운동과 독립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한 인사’라고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는 현재 정상윤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여 보훈처에 추천한 상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열린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는 이명박 당선자 규탄 기자회견’에 마침 참석하셨던 정혜열 선생님을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작년 5월에 진실화해위에서 아버님을 독립유공자로 선정, 보훈처에 추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아버님은 일제 때 우리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좌익 활동을 하셨다는 이유로 해방 후 대전형무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후 60여 년 동안 아버님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까지 이 사회의 적대세력으로 간주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그나마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님의 명예회복이 안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면 관련한 절차는 마무리 되는 건가요?

현재 진실화해위의 결정만 내려진 상태예요.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예요. 보훈처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아버님의 좌익 활동을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해방 후부터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전까지의 좌익 활동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의 좌익 활동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그동안 보여준 보훈처의 입장이었어요. 얼마 전 보훈처에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아버님의 행적을 적어내라고 요구했어요. 이건 아버님의 행적을 인정하지 않고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이미 진실화해위에서 결정이 됐지만, 그걸 무시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난 내 생애 다 할 때까지 1인 시위를 하던 뭘 하던 대항을 할 거예요. 진실화해위 조사관이 결정통지서를 주며 내게 이야기했어요. “보훈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도 이미 아버님의 명예는 회복된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상윤 선생님께서 해방 이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아버님은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충남 공주군 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후에 탄압이 심해져서 지하로 들어가 활동 하셨어요. 그러다가 1949년에 김구 선생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며칠 후에 체포되어 대전형무소로 이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1950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관련자, 남로당원, 전쟁발발 직후 예비 검속된 보도연맹 등 정치범들이 있었는데 산내지역으로 끌고 가서 학살했어요. 대전형무소 자료에는 희생자가 1,800명쯤 된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나온 자료에는 7,000명이라고 해요. 작년 7월에 유족회가 위령제 올리고 본격적으로 유골을 발굴하고 있어요.

‘대전산내학살유족회’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대중 정권 들어서고 2000년 쯤, TV를 보는데 KBS에서 대전형무소 민간인학살 사건이 나왔어요. 학살지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유골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 나왔던 유골을 임시 방편으로 항아리에 넣고 그 옆에 조그만 비를 세우는 걸 보고 KBS방송국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이 계시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이름이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연락했던 목사님이 제주 4·3사건 규명을 위해 애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동참시켜달라고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홍근수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강정구 교수님이 관련 활동을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강정구 교수님을 통해 범국민위원회에 연결이 되어 2003년 3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때 참가를 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 민간인학살 같은 이야기는 입도 병긋 못하고 무언가를 할 생각도 못했었는데. 유족들과 함께 학살희생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쟁을 했어요.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했죠. 그렇게 투쟁하다보니 2005년 겨우 통과가 되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진실화해위의 폐지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걱정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쯤 진실화해위 안병욱 위원장님과 서신을 통해서 면담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오랜 세월동안 반공 이데올로기에 젖어 의식이 별로 없어요. ‘현실이 중요하지, 지난 과거사 가지고 연연하냐.’고 생각해요. 이런 정서가 계속 있는 한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상황이 분명 달라질 거 같아요. 더 두고 봐야죠.

이 글을 정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칼바람이 하늘을 가립니다. 그러나 겨울은 반드시 봄을 부르지요. 우리는 모두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을 겁니다. <글: 김슬기>

2008년 정세와 우리의 과제

정책실장 유영재

‘흐린 뒤 맑음’이 접쳐지는 6자회담

지난 한 해 6자회담은 2·13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10·3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가 이뤄지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이에 따라 북의 핵 불능화(영변에서 가동 중이던 핵시설을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것)와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추진되어왔다.

현재 미국은 북의 우라늄농축계획(UEP)과 시리아에 핵 관련 기술을 넘겼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 핵무기 현황 등이 북핵 폐기의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은 신고 문제에 대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6자회담이 지체되고 있다.

그런데 우라늄농축계획과 핵 이전설은 미국 주장의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북이 핵심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핵무기’에 대한 신고는 6자회담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요구 수준을 낮출 것을 주문하는 데서 보듯 미국의 이와 같은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 해제 문제에서처럼 미국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북미 양측이 타협과 절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시정부가 안팎의 실패로 어려운 처지에서 임기종료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점과 북의 경우도 인민생활의 개선이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서 6자회담은 난관과 지체가 있겠지만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외교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북핵 폐기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고 2010년 북핵폐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자 측도 ‘북의 개방’을 유도하려면 미국이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부시 미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인 2008년에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협정 논의의 본격화, 조미 임시수교 또는 그 이상의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 또는 흐림’이 예상되는 국내 정세

17대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참패다. 그 핵심은 노무현 정권의 민생파탄, 굴욕적인 한미관계, 대북 송금 특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나 재신임 발언 등 국민에 대한 배신과 무시, 독선적 태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민노당도 참패를 면치 못했다. 그 원인은 대중적 실천과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직접 책임지지 않는 정파들의 대립과 권력다툼, BBK 문제 등 정세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선거과정에서

정치력 부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범여권과 민노당이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4·9 총선에서도 어려운 결과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명박 진영은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속도와 폭의 조절, 반대자에 대한 탄압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민생회복 요구가 절박한 조건에서 한반도 대운하 등 이명박의 개발 드라이브가 지속될 경우 보수와 중도층은 상당기간 이명박에 포섭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통일부 폐지를 비롯한 각종 부실한 정책검토 발표로 실망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진영이 특검에서 상처를 받거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 타격을 입고, 가장 핵심적인 기대 분야인 경제마저 세계경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워질 경우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이 닥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진영이 한미동맹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규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이명박 진영의 발언권은 의도와는 달리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는 더욱 증속적으로 되어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가 확실시되고, 미국의 요구인 평화유지군(PKO)이나 NATO 글로벌파트너십(GP) 참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대량살상 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가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작전 통제권 환수문제는 내용과 시기면에서 미국의 입맛대로 요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방위비분담,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등의 협상은 미국의 요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시장만능주의, 능력주의가 횡행하여 사회양극화와 서민대중의 박탈감이 심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폴리스 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검거’ 방침이 보여주듯이 민중의 투쟁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중의 투쟁은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이며 과상적인 형태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발 끈 조여 매야 할’ 주체정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처절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이라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개인주의화와 중산층화, 청년학생운동의 대중성 상실, 진보운동의 정파적 대립과 갈등, 시민운동의 정체성 이완 등으로 운동 전반의 투쟁의 기풍과 태세는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2008년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보진영 전반의 태세는 정세인식과 준비정도에서 볼 때, 이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한미동맹의 광풍을 몰고 올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진보운동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즉, 현재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진보운동은 장기적으로 정세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소수자운동으로 전락할 것이고, 비상한 각오로 투쟁 태세를 가다듬는다면 진보운동의 혁신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한 정세를 주체적으로 맞이하여 2008년을 민족과 민중 승리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복무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세와 대중이 요구하는 당면한 핵심적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체 진보운동

이 단결하여 강력한 투쟁대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 과제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앞장서자!

올해 정세와 대중이 요구하는 당면한 핵심적 실천 과제는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대한 대응과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의 침범이 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평통사의 정체성이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비정규직이나 실업문제, 교육·의료·주거 등의 사회양극화 등 민중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반이명박 투쟁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와 연대단체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평화협정 정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미국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조건에서 50여 년 만에 열린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에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해왔던 실체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절박한 과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끝장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실현되며,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민생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만약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측적 한미관계의 장기화로 인한 주권의 유린,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따른 평화의 위협, 통일에 대한 방해와 민생복지의 희생을 또다시 장기적으로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상당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 남북 재래식 군축을 상호 연동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한반도 평화문제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담보하는 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 나아가 민생복지의 획기적 개선까지 담보하는 총체적 해법인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와 필요성을 우리 국민이 깨닫고 이를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 나가자.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자.

이와 함께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분담,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D)과 미사일방어체(MD), 평화유지군(PKO)이나 NATO 글로벌 파트너십(GP) 참여 문제 등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복무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자. 이 같은 사안에 대한 투쟁은 각기 그 자체로 의의를 가지는 한편,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시안) 해설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강정구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미국이 50여 년간 회피해왔던 한반도 평화협정이 곧 체결될 전망이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누구도 이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거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실화해 내기 위해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를 중심으로 12명의 기안자와 29명의 제안자가 참여하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지난 1월 17일 진행했다. 이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남북의 평화군축을 서로 연동하여 해결하고, ▲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존중한다는 것이다. 발표 및 토론회에 제출된 해설 중 총괄해설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여기에 실는다. -편집자 주-

가. 조약인가 협정인가

일반적으로 조약은 의회의 비준을 반드시 거쳐 국민적 합의라는 형식을 간접적으로나마 갖추는 성격을 갖게 되어 있다. 조약은 의회비준을 전제하지 않는 협정보다는 외교적 구속력이 높은 상위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조약은 상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된다. 이런 만큼 미국에서 조약은 초당적 지지를 얻어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의 안정성을 높은 수준에서 갖게 된다.

협정은 두 가지로 나눈다. 대통령이 의회(상·하원)에 상정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획득하는 의회·행정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과 의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행정부가 맺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이다. 그러나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협정으로 통칭된다.

조약은 구속력이 높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라는 매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냉전의식과 반복의식이 아직 팽배한 미국 사회에서 상원 2/3 의석 확보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부시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간 변수도 현실적으로 조약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행정협정은 의회동의를 무관하게 정부 사이 외교적 합의로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체결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회와 무관하게 맺어져 이행에서 의회의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안정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은 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안정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갖춘 의회·행정협정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부시 정권 임기 내에 평화협정을 완결시킬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준에 어려움이 더 따를 조약보다는 의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의회·행정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포괄기본협정과 부속합의서 형식

이 협정시안은 하나의 포괄기본협정과 필요한 수 개의 부속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다. 포괄기본협정에서 총체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를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하는 형태를 취했다. 총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협정이 핵심이므로 이를 성취한 전제 위에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협정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또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속합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맺어질 것이다. 이들 부속합의서는 각기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안들은 통합하여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 제 5조, 6조, 7조, 21조 등이 규정한 외국군 병력 철수와 군사기지 철거, 22조가 규정한 군사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남북미 사이 합의서
- (2) 제 9조, 10조, 11조, 13조, 14조 등이 규정한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사이 합의서
- (3) 제 12조, 13조 등이 규정한 한반도비핵화 이행을 위한 남북미 사이 합의서(6자회담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임)
- (4) 제 4장이 규정한 남북 경계선 설정과 불가침 담보를 위한 남북 사이 합의서
- (5) 제 5장이 규정한 평화지대 설치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남북 사이 합의서
- (6) 제 30조, 32조, 33조 등이 규정한 남북미 간의 3자공동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남북미 사이 합의서
- (7) 제 31조가 규정한 남북공동평화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남북(북남) 사이 합의서
- (8) 제 7장이 규정한 국제평화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남북미중 사이 4자 합의서
- (9) 제 40조가 규정한 통일을 저해하거나 통일과정에 외세개입을 허용한 조약 또는 협정의 폐기를 위한 남북(북남) 사이 합의서

다. 협정당사자(주체)

한국정부의 평화협정 당사자에 관한 입장은 2·13합의 이전 미국의 입장과 같이 '남·북 당사자와 미·중 보증자'라는 '2+2' 형식이었다. 대부분의 관변 연구기관이나 학계 일반에서도 덩달아 남북 당사자 안을 제창해왔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핵심당사자가 되어야 할 미국을 배제한 남북 당사자 안이 오히려 '자주적'이라는 궤변으로 정당화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요인 때문에 전혀 정당성이 없고 전쟁위협을 구조적으로 제거한다는 평화체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 (1)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전협정의 핵심당사자인 미국의 지위를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자로 바꾸는 것은 형식논리에도 맞지 않거나 평화상태 회복이라는 의무와 책임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셈이다. 일부는 형식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엔참전국 모두가 참여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도 반드시 당사자가 될 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조선)전쟁에서 유엔 측을 총괄하는 군사책임은 '유엔군사령부'가 지고 있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유엔관할기구

가 아니라 ‘미국 지휘 하의 통합사령부’(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불과하므로 미국이 실질적인 전쟁주체의 역할을 전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다른 유엔 참전국이 동일한 지위와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미군은 한국(조선)전쟁의 핵심당사자로서 1958년에 완전 철군한 중국군과는 달리 지금까지 남쪽에 주둔하고 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고, 한국군 군령(軍令)의 대부분을 통제·감시하고 있고, 한(조선)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위협을 주도해 왔고(1),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전쟁을 주도하는 핵심주체가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성격을 가진 평화협정에서 핵심적인 직접행위 당사자인 미국이 협정주체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면 그 협정은 평화의 제도화라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속빈 강정이 되고 말 것이다.

(3) ‘2+2’형식을 주장하는 경우, 보증형식의 역사적 사례로 로카르노 조약을 들먹이고 있다. 그렇지만 로카르노 조약에서 보증자로 거론되는 영국과 이탈리아는 실제 보증자가 아닌 협정당사자였기에 역사적 예에도 맞지 않는다. 유엔 또는 미국과 러시아 등이 중동평화조약 등에 증인(witness)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증자로서 참여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결과 보증자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 설정이 없이 막연히 보증이라는 추상적인 지위부여는 협정의 올바른 내용이나 이행을 담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협정 이행과정에서 내정개입을 허용할 여지를 줄 우려가 있다.

(4) 남측은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상태이고 실제 군령권을 주권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에, 미국이 제외된 채 남측이 단독 협정당사자로서 평화정착이나 제도화 과정에서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남북 당사자 협정은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이행하기 힘든 구도가 되어 휴지협정으로 귀착될 위험을 가진다.

(5) 53년 이후 이제까지 평화협정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2+2’ 당사자 안을 고집하다가 2·13합의로 평화협정에 나서게 되고 논의가 본격화 되자마자 별다른 논쟁 없이 곧바로 3~4자 당사자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급격한 입장 변화야말로 기존 남북 주체(당사자) 안이 얼마나 문제점을 가진 것인지를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협정주체에 관한 미국 정책이 4자로 밝혀지자, 남북당사자 협정을 줄기차게 주장한 학자나 관련자들이 거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그것은 자기들의 기존 남북당사자 안이 정당성이나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갖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라.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평화협정의 핵심은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전쟁 재발방지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구조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그 유래는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평화협정이 핵문제와 무관하게 응당 오래 전에 매듭지어 져야 할 성격임을 말한다.

곧, ‘정전협정 4조 60항의 규정에 따라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변환되었더라면’ 핵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북의 핵무기 시험이 계기가 되어 2·13합의가 이뤄지고 평화협정 국면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비핵화문제는 평화협정의 주요사항의 하나일 따름이지 핵심이거나 전부일 수 없다. 이러함에도 평화협정이 마치 비핵화 협정인 것처럼 비핵화에 주안점을 두는 협정시안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2) 따라서 본 협정시안은 평화구도의 정착에 집중하고 비핵화문제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 다뤘다. 핵문제는 당연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단지 큰 틀에서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과 핵우산 제거 및 핵무기 폐기를 다루었다.

마.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미국은 한(조선)반도에서 핵심무력의 주체로서 확고한 위치를 누려 왔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협정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뿐 아니라 핵심무력의 토대인 주한미군문제가 평화협정에서 반드시 핵심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평화협정이란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고, 이 제도화는 한(조선)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평화위협을 제거시키는 일이 그 본질이다.

냉전기간이나 탈냉전기간을 막론하고 한(조선)반도에 전쟁위협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왔으며, 구조화 시킨 장본인이 미국이고, 이를 뒷받침해 온 것이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이다. 이들 전쟁위협의 실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평화협정은 근본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협정시안은 주한미군, 한미군사동맹, 유엔사 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핵심사항의 하나로 다뤘다.3)

바. 통일과 평화협정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협정이나 ‘항구적 평화체제’는 평화정착과 그 구조화를 이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디딤돌이나 중간과정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런 차원에서 ‘제 1장 한(조선)민족의 기본 권리’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권리를 민족 고유의 신성한 권리로 규정짓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할 것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별도의 장을(8장) 통일에 할애하여 통일의 원칙인 자주와 평화를 명기하고, 한(조선)반도 통일이 한(조선)반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나 지구촌 평화에 기여함을 밝혀 그 의의를 폭넓게 설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외세의 간섭이나 조약 등을 제거하는 선결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완벽한 평화체제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배제 구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장기적으로 구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

칙에 입각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북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남북 간에는 응당 공격형 군사체제를 비 공격형 군사체제로 바꾸고, 이에 따른 상호 군축을 이행하고, 동시에 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화체제를 위한 선결조건인 평화협정 역시 이들 남북 간 비 공격형 군사체제로의 변환, 신뢰구축, 군축 등을 요구한다. 물론 이들은 선후가 아니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시켜야 할 과제이다. 이 협정 시안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5장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전통적으로 남쪽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부분에서 전체로 상향하는 기능주의 접근을 중시하고 선호해 왔다. 북쪽은 정치·군사 문제를 통한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포괄·근본적 접근을 우선시 해 왔다. 서로 왕래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신뢰가 구축된다고 보고,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자는 올림 차순의 남쪽논리는 바로 강자가 약자를 흡수하는 논리에 가깝다. 북측 논리대로 숲을 먼저 그리면 거시적인 전체의 방향은 설정된다 하더라도 부분을 구성하는 미시적인 나무가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이미 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에서 양 접근법을 동시에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군사부문 역시 신뢰구축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군축과 비 공격형 군사체제로의 변환이라는 포괄·근본적 접근을 병진하는 동시행동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전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한 군사정전협정 제4조 60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세기 넘게 한(조선)반도에서 이어져 온 정전상태를 끝내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당사자들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조선)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누릴 권리를 확인하며, 이 평화협정이 그간 남북(북남)이 추구해 온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당사자들은 이 평화협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한(조선)민족의 기본 권리

1조 남북(북남)은 한 민족으로서 자주와 주권, 영토 보전의 권리를 가지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존중한다.

2조 남북(북남)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족 고유의 신성한 권리이며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존중한다.

2장 전쟁종료와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외국군 철수

3조 당사자들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한국(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된 한국(조선)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군사정전협정은 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

4조 ① 미 합중국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 임무를 맡아온 국제연합군사령부를 이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바로 해체한다.

② 당사자들은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7일 결의 83호(S/1511) 및 7월 7일 결의 84호(S/1588), 유엔총회의 1950년 10월 7일 결의 376호(V) 및 1953년 8월 28일 결의 711호(VII)의 A-2항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5조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내에 그 인원과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며 외국군기지도 모두 철거한다. 대한민국 영역 안의 외국 군대의 철수와 외국군 기지의 철거는 위 기한 내에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6조 미합중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어떤 인원이나 장비도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 병력의 1 : 1 교체를 허용한다.

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지원군은 철수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없음을 확인한다.

8조 한국(조선)전쟁의 적대 쌍방 당사자들은 전쟁 과정과 정전 시기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상호 화해와 이해의 정신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한국(조선)전쟁 중 또는 정전 기간 중 발생한 인도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와 불가침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 조치를 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을 비롯하여 한(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13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준수한다.

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4장 남북(북남) 불가침과 경계선

15조 ①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한다.

16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7조 ① 남북(북남)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남북(북남)이 각기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② 남북(북남)의 서해·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소청도 서쪽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 사이의 경우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 15조에 따라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며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에서는 북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기준을 적용한다. 동해 해상경계선은 지상 경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동 방향으로 그은 직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의 세부사항은 남북(북남)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③ 남북(북남)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④ 남북(북남)의 지상·해상·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통일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이다.

18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19조 당사자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과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수립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불가침과 평화공존에 관한 남북(북남) 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20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쌍무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각기 기존 군사동맹을 해체하며 이와 관련된 조약 또는 협정을 폐기한다.

21조 한(조선)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외국군 기지가 철거된 뒤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외국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5장 평화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22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23조 ①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바꾼다. 평화지대에서는 병력 주둔이나 군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군사연습을 포함한 일체의 군사활동이 금지되고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다.

② 평화지대는 남북(북남)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평화지대를 확장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존중한다.

24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둔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은 남북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북(북남)간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0·4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서해 해상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한다.

25조 한(조선)반도 안에서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어떤 외국군대와도 연합 또는 공동훈련을 하지 않는다.

26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외국에서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함정(잠수함, 상륙정 포함), 미사일, 전자유도 폭탄 등을 들여오지 않으며, 여기에는 이들 각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과 부품도 포함된다.

27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기습공격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한다.

28조 한(조선)반도에서 군비경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상호군축을 실시한다. 상호군축의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9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접수 또는 배비를 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지 않는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반도비핵화가 지켜지고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6장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30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3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3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4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기지의 철거(5조)
3.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6조)
4. 한(조선)반도비핵화의 준수(12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3조)
6.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 중지(25조)
7.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3자 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미군철수가 완료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가 폐기되면 해소한다.

31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3조)
2.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관리(24조)
3.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의 중지(25조)
4.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 영역 안으로 새로운 무기반입의 금지(26조)
5.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27조)
6.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2조 3자 공동군사위원회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전원 합의의 원칙 아래 활동한다.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평화감시단에 제출한다.

7장 국제평화감시단

33조 ① 이 평화협정이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고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평화감시단을 둔다.

② 국제평화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태를 감시·감독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보고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4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5조)
3. 미군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6조)
4. 한(조선)반도비핵화의 준수(12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3조)
6.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3조)
7.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리(24조)
8.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 중지(25조)
9.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 영역 안으로 새로운 무기반입의 금지(26조)
10.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27조)
11.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국제평화감시단의 주요 소재지는 판문점에 둔다. 국제평화감시단의 운영경비는 이 평화협정 당사자들이 분담한다.

34조 국제평화감시단은 스위스, 스웨덴,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5개국 대표로 구성한다. 국제평화감시단의 의장은 이 감시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35조 국제평화감시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을 편성한다. 당사자들은 이 감시반

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36조 제평화감시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운영된다. 국제평화감시단은 이 평화협정 이행과 관련한 감시·감독 업무가 끝나면 종료된다.

8장 한(조선)반도 통일

37조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에 따라 남북(북남) 두 당사자가 상호 합의 아래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룬다.

38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민족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함을 인식하며 한(조선)민족의 통일 노력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한다.

39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하며 한(조선)민족의 통일 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40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협정 가운데 통일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나 무력 통일을 허용하는 조약 또는 협정을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폐기한다.

9장 부칙

41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자들의 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국내법 절차를 거쳐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2조 이 평화협정은 남북(북남)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 유효하다.

43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44조 이 평화협정은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고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008년 월 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올바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장정 사업계획을 듣고 나서...

서울평통사 나영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한민족간의 상호 경제협력과 왕래가 빈번한 요즘 이 땅 한반도가 아직까지 정전협정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 한반도가 통일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드는 족쇄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금 무르익어가는 한반도 평화 조성의 분위기에 재라도 뿌릴 요량으로 통일부 폐지다, 우방(미국)의 눈치를 보며 경제협력 사업들의 속도 조정 및 재검토를 한다고 하니 2008년 한반도는 긴박한 정세가 될 듯 하며, 이에 우리 진보 사회 시민단체들이 한 힘을 모아 진정한 평화, 올바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일부 무지한 시민들은 ‘통일이 밥 먹여 주냐, 일자리 창출에 더 힘을 쓰라’며 관심 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이 정말 밥 먹여주고 수많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방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혈세도 줄일 수 있게 되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로 조근조근 설득해 나가면 100일 대장정 때 1만 명 조직, 200일 대장정 때에는 꿈의 목표 10만 조직에 1만 참가하는 집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통사를 통한 화려한 외출

광주 전남평통사 김인숙

저는 한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수 전도단에서 실시하는 예수제자훈련학교의 훈련을 받으면서 태국에서 6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하는 기간도 없이 한 목사님에 추천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하 평통사)이라는 모임에 대해 듣게 되었고 전국 모임이 유성에서 있었는데 어떨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진교회에서 대선배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장측 교회 목사님들을 뵈면서 저의 새롭고 화려한 외출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대전 시내를 방황하는 시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름도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평통사, 회원들이 모인 유성 유스호스텔에서의 첫인상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하얗게 기른 분, 한복 차림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진난만하였으며,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눈높이에서 맞이해 주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몹시 낯선 저를 그 모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첫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을 가리는 저에게 아주 쉽게 평통사라는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시간이었습니

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된 첫만남은 일단 오케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세미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대로만 살아왔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어른들이 보면 모범생이지만 '자주적인 생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현재 우리의 역사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역사의 한 복판에 서서 발버둥치지 않아도 역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역사의 페이지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통사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의 이런 편협하고 좁은 생각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자비량으로 새로운 역사,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설치가며, 피를 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이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온실속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제가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자,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제2회 평화카페를 마치고

부천평통사 더함 분회

평화카페를 한달여 남겨두고 우리는 모였다. 그리고 결정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더함’이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몸으로~마음으로~아자아자~

<더함> 분회원들이 평화카페에서 선보일 율동과 촌극을 준비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도, 서로의 눈을 보며 “너무 무리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뱃뱃웨이브를 자랑하는 전윤미 회원, 율동을 처음 해본다는 김정훈 회원,
자타가 몸치임을 자부하는 장해영 회원까지 율동팀의 인적 구성은 암담했으며, 바빠진 직장
일 때문에 시간내기가 쉽지 않았던 김성근 회원, 딸 해민이와 함께 연습에 참여해야 했던
박숙경 회원, 주한미군 역을 맡았으나 맞는 군복이 없어 고민해야 했던 노철성 회원까지 촌
극팀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시간 때문에, 평화카페를 하루 앞두고 배역이 바뀌는 급박함까지
겪었습니다.

공연시간 3분 30초. 연습했던 것보다 실제 평화카페에서 했던 공연이 최고 잘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평화카페에 놀러왔던 친구는 우리의 율동을 ‘황진희 춤 버전’이라며 자기가
보아왔던 ‘들어라 양키야’ 율동 중 최고 부드러웠다고 칭찬(?)해주었습니다.

연습기간 내내 참 재미있었습니다. 다리를 찢어가며, 진중한 표정으로 몸짓 하나하나를 배
우고, 서로가 실수하는 모습을 쳐다보며 웃는 재미가 솔솔하니 큰 한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히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형, 누나들의 안타까운 몸동작을 훌륭한(?) 몸짓으로 만들어준 허진우(가톨릭대 율동
패 ‘무천’) 더함인의 풋풋함은 분회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진우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하하하!!”

*여기서 더함인이란 ‘더함과 애정이든, 애증이든 어떤 관계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촌극팀 역시 잘하든 못하든 꼭해야만 한다는 의지하나로 못난 몸짓하나, 대사 하나하나를
수정해가며 평화카페에 참여했습니다. 공연시간은 짧았지만 준비하는 시간동안 서로를 보며
웃고 나눈 눈빛은 오래 기억될 듯 합니다

그 무엇보다 <더함> 분회원 모두가 함께 준비한 공연이었기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분회모임을 막판에는 두 세번씩 모여 가며 미흡한 부분을 서로 봐주고 평가하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힘은 평화카페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의 목표가 있었고, 부친평통사 평화카페를 준비하는 한 축에 <더함>이 있었다는 자부심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자평해봅니다.

더함은 '더불어 함께'의 줄임말입니다. 2008년에도 기쁨과 즐거움, 아픔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더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

인천평통사 추진위원 새해 인터뷰

인천평통사 유한경

-대장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박을 이기고자 합니다.(레미콘 노동자로 노동운동에 뛰어 들었다가 평통사를 알게 되고 회원이 된 김원식 회원, 지금은 과주에 살지만 ‘평통사’ 세 글자를 차에 새기고 다닐 만큼 평통사를 너무나 사랑하는 회원입니다.)

-단결! 판나라당의 독세에 위축되지 않고 이명박의 반복행태에도 자주, 평화, 통일의 가치를 더욱 굳게 움켜쥐고 나가는 인천평통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택시노동자 정동근 후원회원님)

-올해도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말하는, 인천평통사 창립과 함께 해 온 우직한 건설노동자 김병철 회원님)

-천대받고 멸시받는 건설노동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그날을 위해 투쟁, 투쟁, 단결투쟁 하겠습니다. 계획은 반드시 실천해야합니다. 대장정 꼭 실현합시다. (인천건설노조 전 위원장님! 인천평통사 사무실에만 오면 뭐든 배워가려고 눈에서 불이 번쩍이는 이준걸 회원님)

-인천평통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실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란 단체를 잘 몰랐다가 남편(이시우 사진작가)의 구속으로 인연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평통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저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 한명에게 정성을 다하여 조직해서 평화협정 선언자들이 모두 평화협정 실현에 주인으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유정섭 사무국장 때문에 회원이 되었다며 강화에서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평통사의 씨앗이 되보겠다는 김은옥 회원님)

-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평통사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구정권의 등장으로 힘든 2008년이 예상되지만 힘찬 투쟁으로 돌파해냅니다. 작은 힘이나마 아낌없이 보태겠습니다! (“난 공부가 가장 싫다. 집회 체질이다” 주장하는, 그래서인지 집회장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노동자 권태형 회원님. 그러나 너무나 박식하시고 교육 때도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평통사에 바란다고 보다는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인천평통사의 든든한 벗! 인천대학교 이주은 학생. 올 해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같이 해나갈 것인가 고민이 많은 청년학생입니다. 애정 어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평통사! 고맙습니다. 27일날 공부방 캠프

때문에 7.27집회 참석은 못하는데 그래도 추진위원이 될 수 있나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공부방선생님 김금옥 후원회원님)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와 함께하는
2007 평화카페

대전충남평통사 박석진

지난 12월 13일, 서대전네거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전충남평통사 2007년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지역단체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부 순서로 진행된 이시우선생의 사진 슬라이드강연. 녹슨비무장지대를 넘어 평화로, 통일로...

2부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준 풍물공연. 섬나의 집 풍물패 '씨알문화패'.
운영위원 소개도 하였습니다. 대전충남평통사를 이끄는 분들이시죠.

충북 영동에서 미군 폐탄약 재처리시설 건설반대투쟁을 하고 계시는 주민대책위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발언을 하고 계신 박홍열 위원장.

축하공연을 해주신 6·15청년회 문화패 '놀'과 벨엘의집 노래패 '도개걸웃모'의 공연.

행사장 한편에서 문옥면회원님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이 나누어지고... 대전충남평통사의 사랑이죠, 정한섭회원님의 독창.

마지막 공연은 회원가족의 합창이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열심히 연습한 노래를 불렀답니다.

여자부 "당신은 하늘의 아들 사랑의 노래를 갖고온 이~" 남자부 "당신은 땅의 사람,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 모두 함께~ 혹시 열심히 연습한 화음이 들리시나요?

순서에 없는 즉석요청임에도 멋드러지게 노래를 해주신 영원한 누님!! 이정순 지도위원장. 평통사행사때는 언제든 노래를 해주신다고 약속했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모두 함께 손잡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며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2007년 대전충남평통사여 영원하라!!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주신 문옥면 회원님, 행사음식을 지원해주신 오명세·윤방수회원님, 일요일에도 빠짐없이 노래연습에 참여해주신 조주형 전 공동대표님 내외분, 임수규·김미옥 회원님과 두딸 경민·도희, 윤상렬 회원님과 쌍둥이 아들 재호·준호, 열결에 참여해 멋진 바리톤으로 함께 해주신 조부활 목사님, 무한한 인내심(?)으로 노래지도와 공연을 준비해주신 정한섭 회원님, 행사장 준비와 마무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화·정성삼·송지영 회원님, 명사회로 이날 행사의 빈곳을 충분히 채워주신 유병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행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김홍수 교수님, 원용철·서영완 공동대표님, 유장환·문양로 감사님·김지수 운영위원님을 비롯해 행사에 참여한 모든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큰 후원을 해주신 유요열, 정순희, 조봉현, 고광성, 장춘 등 홍성지역 회원님들,

멀리 녹도의 송원준, 이상봉 회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에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대전충남평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안되나요?

안동 평통사의 이상윤 회원이 2007년 12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

어디 가셨나요?

오늘은 대희 고등학교 시험 날인데.

형 어디 가셨나요?

대통령 선거가 코 앞인데, 할 일이 많은데,

일 잘 하는 형이 꼭 필요한데. 이쁜 연희 머리도 깎아줘야 하는데.

형.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술자리 잠시 비워 두고

담배 사러 가셨나요?

겨울 밤 때 아닌 비가 내리고 하늘이 잠시 열린 틈을 타

그리도 멀리 부지런히 가셨나요?

황망한 마음으로 돌아 보면

형은 이렇게 살았지요.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셨지요.

그래서 열심히 불도저를 몰고, 공돌이가 되고, 용접공이 되어

이 땅을 가꾸는 일꾼이 되셨지요.

풀꽃 같은 안동 색시를 만나 열렬히 사랑도 했지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바보처럼 일만해도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싸우고 독재정권과 맞붙어 싸우고

거대언론 조선일보와 싸우고 부도덕과 싸우고 반통일과

반평화와 썸박질을 해댔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거짓말이었지요.

무엇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인지 처음부터 형은 알고 있었지요.

말 많은 사람들 틈에서 똑똑한 사람들 틈에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오직 온 몸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아! 형의 하얀 웃음이 금방이라도 함박눈이 되어 내릴 것 같습니다.

형의 선 굵은 땀방울이 금방이라도 비가 되어 내릴 것 같습니다.

이를 어찌지요. 이리 부산을 떨다 불쑥 형이 돌아오면 어찌지요?

연희야, 대희야

이제 곧 슬픔을 거두고 아버지를 자랑하거라.
아버지는 통일의 일꾼이었다. 아버지는 평화의 파수꾼이었다.
아버지는 불의에 항거하는 진정한 투사였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 이상운은 겸손하고 따뜻한
함박꽃처럼 웃을 줄 아는 맑고 착한 영혼을 가진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였다.

슬픔이 너무 커 눈물조차 말라버린 형수님.
이제 곧 슬픔을 거두고 형을 더 오래도록 사랑하세요.
세상 모두가 형을 사랑하였으니
세상 모든 일이 형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
형수님 드릴 사랑이 좀 작아지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형이 온 몸 바쳐 사랑했던 한 여인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열 아홉 숫총각처럼 수줍게 얼굴 붉히며
“나는 마누라를 열나게 사랑했습다 죽도록 사랑했습다”라고
우리에게 한 고백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형.
어디 가셨나요?
비가 그치고 매운 바람 부는데 그예 어딜 가셨나요?
아직 나는 형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형은 어딜 그리 바빠 혼자서 가셨나요?

형.
좀 더 형을 사랑하면 안되나요?
술 한 잔 더 하면 안되나요?
마라톤 한 판 더 뛰면 안되나요?
조금만 더 오래, 사랑하면 안되나요?

2007년 12월 13일 모두의 마음을 모아 후배시인 피재현이 바칩니다.

만리포 상륙훈련은 적법한 공무인가?

자주평화팀장,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오혜란

2006년 3월 30일, 평통사는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연습(RSOI-FE)의 하나인 만리포 상륙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초 기자회견을 문제 삼지 않았던 군과 검찰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공격에 따라 2006년 4월, 참가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어 불구속 기소하였다. 2007년 1월부터 시작된 만리포 재판은 지난 12월 28일, 1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마무리 되었다. 결과는 기자회견 참가자 8명에게 각각 징역 4~10월, 집행유예 1~2년 씩! 평통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이라는 재판원칙을 완전히 저버린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위해 항소하였다.

치열한 법적공방, 비겁한 판결

1년에 걸친 법정 공방의 핵심은 작전계획5027-04와 이에 따라 진행된 만리포 상륙훈련이 과연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적법한 공무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만리포 상륙훈련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무라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군 당국과 검찰이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탱크와 장갑차를 가로 막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해병대 사령부 소속 장병들의 한미연합상륙훈련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재판부는 “만리포 상륙훈련은 작전계획5027-04의 3단계 2부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로 결심한 후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상정하여 실시된 훈련임이 인정된다”면서 ‘만리포 상륙훈련이 평화통일 추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특정지역의 고립 및 침투를 목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아니”(2007.5.1 합참, 사실조회회신서)라는 합참의 주장을 배격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고 있으나 “작전계획 5027-04가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비한 방어를 위한 계획”이라는 군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작전계획 5027-04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한 방어 후 북한 지역으로 진격작전이 자위전쟁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리포 상륙전 훈련이 위법한 공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2007.12.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 판결은 만리포 상륙훈련이 평화통일 정책 추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는 점에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며, 대북 공격연습에 면죄부는 줌으로써 적대적 대결의 종식과 평화실현이라는 정세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작전계획 5027-04는 북한정권 제거 등을 전쟁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2002년 12월 5일,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체결된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이하 '전략기획지침')에 따르면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5027-04의 작전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곧 작전계획 5027-04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자위적 방어 수준을 넘어서 대북 체제 전복을 노리는 전쟁목표에 따라 전개되는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임을 의미한다.

대북 체제 전복을 전쟁목표로 설정할 경우 주전장을 북한 지역으로 삼고 단기간 내에 군사적 전략 거점과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함으로써 북의 전쟁수행 의지와 능력을 거세하는 중심작전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전면전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그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 절멸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게다가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북·중 국경선, 또는 그 너머로 확대될 경우 한반도에서 중·미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자위적 방어를 전쟁목표로 삼는다면 전쟁 양상은 방위전쟁으로,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으로 진행되고 작전지역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형성되며 단기간에 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으므로 전후복구와 통일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만리포 상륙전 훈련은 위헌

재판부는 “헌법이 침략전쟁을 부인할 뿐 자위전쟁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북한이 남한 체제 전복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어 후 북한 지역으로 진격작전은 자위전쟁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 5조(침략전쟁 부인)와 3조(영토조항)를 언급하고 있을 뿐 작전계획 5027-04 및 만리포 상륙전 훈련이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이익, 국가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헌법에 구현된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는 작전계획 5027-04와 만리포 상륙훈련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기준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데 정부의 정통성을 두고 있으며,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사명에 의거 민족단결의 공고화”,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의 국가이익은 (자주)독립과 평화통일로, 국가 목표는 (자주)독립, 평화통일, 민주개혁, 국민복지 실현, 세계평화로 정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역시 ‘헌법에 근거한 국가이익’으로 ①국가안전보장, ②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③경제발전과 복리증진, ④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⑤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를 5대 국가이익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 2004년.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7~29쪽)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또 헌법 5조(침략적 전쟁의 부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헌법 3조는 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이기에,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들어 북한 체제 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04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전면 남침한다 하더라도 작전계획 5027-04와 이에 따른 상륙훈련은 합헌·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만리포 상륙 훈련은
국방목표에도 위배돼

북 체제 전복을 노리는 전쟁목표는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1994년 3월 10일 개정)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2006~2022 국방기본정책서’에서 국방정책목표를 자주적 선진 국방구현에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점진적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환경의 조성, 현존·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위 역량의 발전, 국가와 사회 발전에 부합된 선진 국방운영체제의 확립 등을 3대 국방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전계획 5027-04는 우리의 국가이익이 아닌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 곧 미국식 가치 이식으로 북한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헌법은 물론 국방목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족 단결을 실현하고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 민족 단결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체제 존중은 민족 단결의 지표이므로,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리는 전쟁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전쟁 위험을 줄이고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의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자위전쟁의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전면 남침을 전제로 할 경우 공격의 격퇴를 넘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진공격이 합법화·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제법과 유엔헌장은 무력침략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자위권은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자위권의 행사기간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관한 1950년 6월 27일, 7월 7일의 유엔 결의 등은 북의 공격을 침략행위가 아닌 ‘평화의 파괴’로 보고 북의 ‘공격을 격퇴’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 유엔군은 ‘한반도 통일, 독립, 민주정부의 수립’을 규정한 1950년 10월 7일 결의를 북진공격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으나 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은 애초 유엔 결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엔의 개입 목표가 공격의 격퇴이지 한반도 통일은 아니라는 영국의 주장, 만일 38선 이북으로 진격할 경우 유엔군은 침략군이라는 공산 측

의 비난과 이러한 주장에 대한 네루의 지지 등이 그것이다.

또한 1950년 10월 7일 결의는 정전협정 제60항(고위급 정치회담 소집과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 결의(정전협정 체결 승인 및 60항에 의거한 정치회담 개최 환영)에 의해 대체되었으므로 북한 체제 전복과 무력통일을 상정하는 작전계획 5027-04와 만리포 상륙훈련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남한의 대응이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평양 인근의 북한 서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작전계획 5027-04와 만리포 상륙훈련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이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심작전 : 아군 영토의 보존을 위하여 조기에 전쟁을 적지로 확대하고 적지 결전을 추구하며, 아군 전투력을 보존하면서 적 전투력 및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적의 깊은 중심에 있는 전 전투력의 중추부를 타격하며 접전 구역에서의 적의 강점은 고착 견제하면서 접전 지역의 후방의 적 중심에 아군 전투력을 집중하는 개념으로서 적지 결전을 추구하는 작전. (합동참모본부, 연합합동 군사용어사전, 2004년)

*국가이익 : 국가의 생존, 번영과 발전 등 어떠한 안보환경 하에서도 지향해야 할 가치를 의미함.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 2004년)

*국가목표 : 국가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헌법에 표현되며, 국가가 도달하고자 하는 국가정책 상의 목표이며 국가정책과 전략 방향 및 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함. (국방대 학습자료)

사진으로 보는 중앙소식 1

“국민을 무시하는 국방부의 국가 안보는 누구를 위한것?”

국방부는 겨우 며칠을 남겨두고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협의매수 기간을 통보하고, 국회에는 주민들 전체가 훈련장 확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국방부를 규탄하기 위해 11월 30일, 상경한 무건리 주민들과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국방부 규탄” 집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은 평통사의
우리 몫입니다 ^^”

12월 10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임원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홍근수, 문규현 상임대표님을 중심으로 각 지역 평통사 주요 실무자들이 함께한 이번 워크샵에서 2008년 기필코 평화협정을 이뤄내고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결의를 힘차게 다졌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쓰레기탄약, 국방부... 바보가 아닐텐데!”

지난 11월, 국방부는 전시비축예비물자(WRSA) 공개 성능시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과 기자들도 생색내기라는 비난과 함께 어이없어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1일, 국방부는 WRSA매입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국방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愚公移山” - 평통사가 미국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으랏차차!!

1999년 10월부터 시작된 반미연대집회가 2008년 1월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경찰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고서 매향리 국제 폭격장 폐쇄투쟁, F-15K 도입 반대, 두여중생 사건 해결 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등 반미사안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투쟁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다함께 격려하며 2008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매향리 주민들과 농섬은
여전히 아프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비롯듯이 환경치유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국방부가 파주 캠프 에드워즈, 유엔사령부에 이어 1월 16일 매향리 폭격장의 환경오염 실태관련 공개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눈가림식으로 진행된 이러한 공개 설명회는 결국 매향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한-미간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폭격 잔재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농섬을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인수위는 외교와 통일도
구분 못하나?”

1월 7일, 도덕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가 통일부 축소 및 통폐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통일의 활로가 펼쳐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일부를 없앤다는 것은 용납할수도, 용납되어서도 않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는 지난 1월 17일에는 통일부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바,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

서울

1월 2일(수)와 9일(수), 이틀에 걸쳐, 박석분 회원사업팀장을 강사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 실현’을 위한 대장정 교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날 교양은 열아홉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현재 한반도 정세와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의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연구소와 진보적인 학자들이 함께 만든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날 교양은 열세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평화협정(시안)에 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 서민들의 가정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양에 참석한 유호명 회원은 평화협정(시안)을 “간밤에 3시간 동안 안자고 읽어보면서 이 평화협정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라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월 15일(화) 오후 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옆 KT 앞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0차 반미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서울 평통사는 서른 여섯명의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서영석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직장에 다니는 회원들은 월차를 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한독운수 택시노동자 분들이 밤샘 운전으로 2-3시간 밖에 못 잔 고된 몸을 이끌고, 허세욱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미군철수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결의로 열여섯 분이나 와주셨습니다. 집회에서 황윤미 사무국장은 “허세욱 열사는 반대연대집회가 있는 날 일부러 광화문 가는 손님을 기다려 태우고 와서, 택시를 세워두고 집회에 참여했다”며, 열사의 모범을 따라 반미연대집회를 더욱 빛내 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임에도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집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에 남아, 2008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알립니다]

1/26(토) 저녁 6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6차 총회를 엽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총회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희망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부천

회원 경조사

- 1/13 이숙주·전윤미 회원 결혼, 정말로 축하!
- 1/18 이보영·조민우 회원의 딸 윤서 백일. 축하 축하!
- 1/11 최창수 회원 모친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생일축하해요^^
박은남(1/1) 임현순(1/21) 성명은(1/23) 이현주(1/25) 김숙희(1/27)

박성수 구속! 비정규직 철폐! 이랜드투쟁승리 촛불문화제[홈버 중동점 앞]

7월 1일 비정규 법안이 시행 되면서 해고된 이랜드 뉴코아 동지들의 투쟁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 차가운 겨울이 오는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천민중연대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랜드 동지들의 투쟁을 알리고 불매운동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오랜 투쟁으로 힘들어 하는 이랜드 일반노조 홈에버 중동분회 조합원들에게 지역연대 투쟁으로 동지애를 전달 하고자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풍물패의 공연으로 시작된 문화제는 노래와 이야기로 꽃을 피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 오고 저녁시간이라 배도 고파왔지만 최도은, 꽃다지, 홈에버 중동분회 조합원들의 노래에 맞춘 환호성만으로도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 행사였습니다.

비록 찬바람 불고 복직 되지 못하고 올 한해를 보내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 서로 격려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립니다]

2월 16(토) 5시 30분 제6차 정기총회
장소 : 부천시근로자복지관 3층 대강당

인천

12/27 콜트악기 투쟁문화제]노동분회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

-콜트악기 집단정리해고 원상회복 및 분신사태 해결 촉구 인천지역 투쟁문화제-

12월 27일 오후 6시 30분 ‘콜트악기 집단정리해고 원상회복 및 분신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위원회’ 주최로 콜트악기 앞 마당에서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인천평통사에서는 정송호 분회장을 비롯하여 투쟁의 현장에 항상 함께하는 KM&I 조합원인 전혁구, 오현곤 회원 등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콜트악기 해고자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심자섭, 김의균 회원은 회원들의 지지방문에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추운겨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콜트악기 조합원들을 비롯하여 심자섭, 김의균 회원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2/22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명상 삼보일배]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입회원인 이시우 평화사진작가는 12월 3일 홀연단신 경기도 파주 임직각을 향해 삼보일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시우님은 임진각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성, 부산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평통사에서는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부장, 이은직 분회장이 지난 12월 22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녹번역부터 불광역 인근까지 진행된 삼보일배에 함께 했습니다. 평소 운동부족이던 유정섭 사무국장님은 다리가 후들거렸다는 소문이... 늘 묵묵히 일하시는 이시우 회원님 힘내세요!

회원소식

- 2/16(토) 정유성 회원 결혼식 : 오후3시 주안컨벤션웨딩홀(주안역 남부역 건너편)

- 1/10 이시우 평화사진작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쩨 평화협정 실현이 머지않은 이 때 시대에 역행하는 구형을 한 검찰을 규탄하며 1월 24일 (목)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417호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인천평통사 6기 정기총회

- 일시 : 2008년 2월 2일(토) 늦은 6시30분

- 장소 : 마을사람들(구 참여자치연대/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 2번 출구 앞)

- 회비 : 10,000원

경기남부

2007년 12월 22일, 준비위원 발족

경기남부 평통사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경기도 오산 다솜교회 장창원 목사님과 평택 전교조 이종필 선생님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으시고 평택지역 노동자 현호현씨가 사무국장 서리로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2008년 2월 22일 경기남부 평통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7, 회원교양

“주한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대한 회원교양을 하였습니다. 9명의 회원분들이 참여하였는데, 미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이번 대장정을 통해서 경기남부 평통사는 평택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기본으로 하여 활동해 나갈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알립니다]

“경기남부평통사 첫 발돋움” 행사 진행

쭝일시 : 1월 25일 오후 7시

쭝장소 : 평택 자활 교육실(평택 현대증권 맞은편)

평택, 오산, 화성,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평통사 소개 슬라이드 상영, 평화협정 체결 대장정 사업 설명회 등)

경기남부 평통사 창립 총회

쭝일시 : 2008년 2월 22일 금요일

쭝장소 : 미정

매항리 폭격장 폐쇄투쟁 승리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했던 평택 미군기지 저지 투쟁을 계승하여 미국의 전쟁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와 통일의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창립 총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대전충남

부패정치세력 척결과 민주정치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12월 17일, 18일 불법후보의 사퇴와 민주정치 수호를 염원하는 대전지역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전충남평통사 회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서 손에 들고 있는 촛불의 온기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날은 대전충남평통사의 미인들도 함께 했는데요, 추운날씨에 코끝이 빨개졌지만 더욱더 예뻐보였습니다^^

행사의 말미에 참가자 모두 합창을 했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70년대에 만들어진 이 노래가 웬일인지 이날은 지금 상황에 꼭 맞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각자 들고 있던 촛불을 하나로 모으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모아진 촛불처럼 우리의 의지도 하나로 모아지길 바랍니다.

[알립니다]

1월 26일(토), 계족산으로 신년 산행을 갑니다.

함께 맑은 공기도 마시고 새해의 다짐도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042-635-5812 / 010-2071-5289(장도정)

2008년 6차 총회가 열립니다.

일시 : 2월 19일(화) 늦은 7시

장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6기 대전충남평통사의 힘찬 출발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북

김민웅 교수 초청 평화강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6일 “2007년도 대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2007년 평화학교 제 1강이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는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등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 그리고 전병생 대표를 비롯한 전북 평통사 회원, 그리고 일반시민들 약 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여 주로는 대선과 관련된 주제들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의의 요지는 패배감을 극복하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선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식사를 함께 나누며 송년회가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대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나눔의 뒷풀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2차례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7일과 1월 7일, 2차례에 걸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교육은 군산, 전주 등 준비모임 결성을 준비하는 운영위원들도 함께하는 교육으로 김판태 국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 여명의 운영위원 및 회원들,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한 1월 두번째 교육은 유영재 정책실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신년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전주평통사 준비모임

전주평통사 준비모임 시작

전주 평통사 준비모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밝힌 김형근 선생 (군산동고등학교 재직 중)과 전북 평통사는 전주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전주지회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지난 12월 29일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규현 상임대표가 계신 전주 평화동 성당에서 통일송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지난 3년여간 하루도 빠짐없이 1,000통의 편지를 복讎 친구에게 보내온 학생을 격려하는 자리와 더불어 반전 평화운동의 모범이 되어온 관촌중 학생들의 소중한 몸짓을 본받아 통일과 평화를 위한 실천들을 전주지역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1월 18일 오후 5시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님이 주임신부로 있는 평화동성당에서 문규현 신부님 등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 평통사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문규현 신부님이 “대선 후 어떤 분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오셨다. ‘直心於仁’(농부처럼 고지식 하게 직심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룬다는 이야기)의 마음으로 역사를 열어 나가는 사람이 되자”는 격려와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판태 국장이 평통사를 소개하고 2008년 중점사업인 ‘평화협정 대장정사업’에 대해 교양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통사가 지향하는 평화는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근본을 지향하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문신부님과 함께 씨앗을 뿌리게 영광이다’, ‘돌 하나를 더 놓는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자식과 함께 하는 조직이 되면 좋겠다’, ‘평통사가 효순 미순양을 달래주는 단체였다고 하니 정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다’ 등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모임은 2월 16일(토) 오후 6시 평화동성당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군산평통사 준비모임

12월 20일 10여 명의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 회원들과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송년회에서 대선 패배감을 극복하고 2008년에는 군산 평통사를 결성하여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해 나가자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12월 27일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 운영위원회를 통해 군산 평통사 창립총회 일정을 2008년 2월 23일에서 3월 말 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군산과 광주전남 조직사업을 담당해온 정동석 국장이 광주전남 사업을, 김판태 국장이 군산사업을 전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월 16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미국의 F-16 순환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1월 15일 군산기지에 F-16 6대 배치완료, 이번 주에 추가로 14대 배치예정, 300여명의 병력과 지휘소 배치 및 4개월 동안 한반도 역외 훈련 등을 확인하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일 뿐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원천적으로 불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전남

07년을 ‘해남지역’ 첫 모임으로 마무리하다.

08년 새해를 바로 앞둔 07년 12월 28일 광주전남 평통사 ‘해남지역’ 첫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전남 평통사에서 배종열 대표님, 김용성 목사, 정동석국장과 본부 김종일 사무처장 그리고 해남에서 한강희 목사, 박종찬 목사, 김은곤 목사, 박영배 목사, 김기수 목사, 설주일 목사, 박승규, 김경태 목사가 참여하여 광주전남 평통사 ‘해남지역’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종열 대표님은 ‘평화 메시지의 중요성과 그에 따라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평통사가 조그마한 단체이지만 가장 헌신적이며, 선명한 과학적 단체이다.’, ‘평통사와 함께 힘차게 활동하자’고 강조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일 사무처장이 평통사의 연혁, 평화운동의 중요성, 07년 대신 평가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모인 분들은 평통사의 내용을 지역적 특색과 조건에 맞게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새해 1월 10일은 광주전남 평통사 08년 신년하례식이 정동석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무안에서, 나주에서, 목포에서, 광양에서, 해남에서 25명의 회원과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님과 유영재 정책실장의 참여로 열띠게 진행하였습니다. 배종열 대표님께서 지난 한해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광주에서, 나주에서, 무안에서 그리고 해남에서 광주전남 평통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된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08년 건강하고 더욱 힘찬 한 해를 만들자는 힘찬 격려”와 서창호 교수(공동대표), 이철우 목사님(공동대표), 김병균 목사님(공동대표)들의 새해 말씀과 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목사님의 격려, 유영재 정책실장의 교육을 듣고 참석자들이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대장정의 추진위원>으로 가입하는 결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해 총회 진행도 못했던 광주전남 평통사가 많은 회원이 생기고, 여러 지역에서 회원 모임이 생기면서 정말 모처럼 희망차고 뿌듯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구

대구평통사는 아직 미조직입니다. 그래서 준비모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편의상 대구평통사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대구평통사는 작년 말에 사무처에서 시행한 300회원 모집 확대에 발맞추어서 회원모집에 주력하였습니다. 본부의 계획이 있든 없든 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원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사무처의 회원확대 계획이 있어서 활동하기가 좋았습니다. 당초 사무처에서는 대구 형편을 고려하여 5명만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기독교 운동 조직에 계시는 성직자분들이 힘을 합쳐 주어서, 애초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후원회원은 모두 17명입니다. 준비위원의 신분이나 주변관계가 기독교 쪽으로 형성돼 있어서 회원모집도 이 범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평통사가 실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범주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또 사무실 이전을 위한 모금사업에도 호응하여 5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요청받은 회원들이 기꺼이 모금에 응해 주었습니다.

후원회원모집도, 이전모금도 십시일반으로 하여서 당초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통사에 대해 대중들이 좋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을 평통사가 적극 감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 그 일에 본인이 참여하는 것을 작은 보람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구랍에 있었던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대구인권위원회 송년모임 때는 “주한미군 몰아내는 평화협정 체결하자” 교양자료집을 배포하고, 금년에 진행할 ‘평화협정 관철을 위한 대장정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몇 분이 평통사 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1월 11일에는 두 조직이 함께 신년교례회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연은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씨가 ‘IMF 이후 10년간의 한국사회 변동과 이명박 정부의 진로전망’을 주제로 했습니다. 토론시간에 한 참석자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흥정책이 훗날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정책이 될 우려가 크며, 그 대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 범주에 있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구평통사 준비위원 백창욱

안동

지난 해 12월 27일(목) 저녁 6시 30분 안동 나섬학교에서 제 5돌을 맞는 안동평통사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예년과 달리 매년 7월에서 연말 12월로 연장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총회여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대했던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아마 연말이라는 분위기와 또 대선 이후 알게 모르게 대중 속에 넓게 자리한 공허하고 허탈한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침체된 어두운 분위기를 감지한 듯 김창환 회장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보수성을 띤 새 정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이 보다 새로워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평통사가 앞장서서 나아갑시다.” 한편 강석주 사무국장은 2007년 안동평통사의 전반적인 사업에 불만을 표하며 2008년에는 보다 조직강화를 통화 새로운 활력에 힘을 실었습니다. 즉, 꾸준한 회원 만남의 행사 정례화, 업무분장에 의한 체계적 조직가동, 각 지역 단체들과의 유기적 결합 등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 안에 화답하여 평통사 임원의 개편이 이어졌습니다. 회장과 사무국장, 정책의장 등은 그대로 유임됐으나 일부 선출직과 추천직의 변동, 그리고 새로운 운영위원의 선출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중앙에서는 변연식 공동대표를 비롯, 김종일 사무처장, 박석분 회원관리팀장, 박종양 부장 등이 함께하여 내년도 중앙평통사의 사업방향과 함께 최근 급변하는 한미관계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한 1백만 명 서명운동의 전개 방향과 그 취지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매우 유의미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소백산 산행(회원 만남의 날 행사)

2008년 1월 12일(토), 안동평통사의 소백산 겨울 눈꽃 산행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정기 총회 때 결의했던 월 정기 회원 만남의 행사 일환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침 전날, 전국적으로 내리던 겨울비의 영향으로 산간지역에선 큰 폭설이 내려 우리가 오른 소백산은 오롯이 이름만큼이나 고운 순백의 세상으로 화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평통사 회원 22명은 그야말로 말로 담아내질 못할 파노라마의 이국적 정취에 맘껏 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축복인지 다행히 날씨는 종일 포근했고 그 매섭다던 비로봉의 칼바람도 길을 잃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비로봉 정상아래 5평 남짓 비좁은 대피소에서 용기종기 모여 즉석에서 끓여먹던 컵라면의 아련한 추억은 소백산의 순백만큼이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날 등산코스는 영주시 풍기면 삼가리 비로사에서 시작, 비로봉을 거쳐 연화봉과 천문대를 경유, 영주시 수철리 회방사로 내려오는 약 14km의 7시간 여정이었습니다. 다만, 등산화가 발에 맞지 않아 못내 흥측한 흔적(?)을 남기며 무거운 길을 걸었을 김현택 회원 외 22명 모두는 이날 산행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민족 운동이 다시 절실해졌습니다”
- 재미 동포 운동가 이행우 선생님 인터뷰-

뉴욕 최성희

“수구세력의 재집권과 청산되어 마땅한 사회가치체계로의 회귀는 민족운동이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략] 폭을 넓혀, 그간에 추구해온 민족의 자존문제, 민중의 참된 삶의 문제, 신자유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 문화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바탕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남과 북, 해외동포와의 관계는 매우 특수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빼격거릴 때는 해외동포가 그 틈새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잘 나가면 해외동포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고, 남과 북이 빼격거릴 때는 해외동포의 역할이 그만큼 커집니다. [중략] 이민의 삶은 곧 독립투쟁이였습니다. 이 전통은 그 후 민주화투쟁으로, 그리고 통일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합니다.”

- 이행우, “민족 운동이 다시 절실해졌습니다.”

(2007 년 12 월 30일) 중-

위의 인용 글을 통해 우리는 새해를 여는 한 재미 운동가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리라. 이행우 선배님(77)을 처음 뵈는 것은 2005년 뉴욕, 유엔주도 NPT(비핵확산 조약) 연간 검토가 있던 때였다. 그 때 평통사 간부들도 처음 “뵈었는데 유엔 주변에서 열리는 행사의 비디오 기록 차 갔던 나는 우연히 이행우 선배님과 평통사를 통해 미주 동포 사회와 한국 평화 운동의 연대를 목격했다. 최근 프린스턴 정크션으로 멀리 이사를 가신 선배님을 인터뷰를 구실로 실례를 무릅쓰고 1월 7일 뉴욕까지 오시게 했다.

이행우 선배님은 (미주 동포 사회의 한 구심점이 되는)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현직 회장이자 6·15 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다. 또한 오랜 기간 미 의회, 행정부, NGO 등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위해 그늘에서 교육과 로비, 포럼 조직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남, 북한 대표, 미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2004년 7월 20일 미상원에서 있었던 의원포럼, “Korean Peninsula Peace & Security Forum” 이다. 웨이커 교도인 선배님은 AFSC(전 세계 대상 평화 봉사), FCNL(미국 정부, 국회 대상 교육 및 로비) 등 웨이커 기관들과도 오랫동안 일을 꾸준히 하셨다. 선배님은 항상 겸손하심과 성실함으로 철없고 게으른 나를 놀라고 자아반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설렁탕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운 뒤 커피숍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5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다. 선배님께서 사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더 여쭙 볼 것이 많아진 것도 있었지만 선배님의 일생 자체가 미국 동포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쉽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다. 그 많은 중요한 활동과 중요한 역사를 짧은 지면에 다 담지 못하고 몇가지 활동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미국에 오시기 전 삶과 미국에 오신 계기를 간단히 소개하신다면?

1930년, 전북 익산에서 자작농의 (14남 2녀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서울 문리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 선생으로 일했다. 한국에서 퀘이커 모임이 태동할 때 같이 일하던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퀘이커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1968년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퀘이커 교육기관인 펜들 힐(Pendle Hill)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왔고 그곳에서 주로 퀘이커 역사를 공부하였다. (펜들 힐에는 함석헌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초청하게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펜들 힐에서는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했으나 주말에는 두고 온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밖에서 나가 일하기도 했다. 펜들 힐 이후 컴퓨터 공부를 했고 취직한 2년 후에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살 수 있었다. (현재 가족으로 부인, 결혼한 아들 두 분, 두 손자가 있으시다.)

미주 동포 운동을 시작하신 계기와 그 후 활동은?

1970년 유신 정권 때, 함 선생님이 미국에 오셔서 순회강연 하실 때마다 동반 안내를 해드리면서 미주 동포 사회의 여러 모습과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1974년 필라델피아에서 결성된 “한국수난자가족돕기회”에 참여하였다. (2대 회장역임) (그 후 80년 5·18 광주 항쟁은 미주 운동사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때부터 미주 운동이 국내 민주화 운동 지원에서 동포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운동으로 양적, 질적 변화를 했고,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해외(미주) 운동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당시 미주 운동권은 “선민주 후통일”, “선통일 후민주” 즉, 민주화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는 보수, 통일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진보, 양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양 진영의 화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관계하고 있던 AFSC주최로 Korea Conference (3회: 1981, 1982, 1983년)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책 “Two Korea One Future?”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출판)을 발행(1987년)하도록 했다.

1980년 9월 AFSC 대표가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나는 1982년 AFSC 2차 북한방문대표로서 방북하고, 점점 통일운동에 빠지게 되었다

1986년 한겨레미주정보원(Korea Information & Resource Center)을 워싱턴 DC에 설립(이사장)하고, 1987년Korea Support Network 을 조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90년 범민족대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조직하는데 참여 일조 하였다.

1994년 미주동포전국협회(NAKA)를 결성하고,

1995년 미주평화통일연구소(98년 통일학연구소로 개명)를 설립하고,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98년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으로 발전)를 조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남북이 공동행

사를 위한 준비모임, 소위 말하는 95년 베이징(Beijing) 회담, 96년 바르샤바(Warsaw) 회담을 조직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NAKA(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의 창설계기와 활동은?

미중 국교 정상화, 월남전 종식 등에 케이커가 중재자(Mediator) 역할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북통일에 케이커가 중재자가 될수 없을가 고민하던차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친분이 있는 한완상 박사가 통일원 장관이 되었다. 이때다 싶어 서울에서 케이커 모임을 함께 시작한 조동설 형이 서울에 가서 통일원 장관을 만나고 나는 평양에 가서 조평통의 해당 일꾼을 만나 우리의 뜻을 전하였다. 양쪽이 똑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바꾸도록 운동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값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돌아 왔다. 그때 미국교회협의회 회장이던 이승만 목사와 상의, 재미동포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운동단체를 창립하기로 합의하고, 1년 5개월동안의 조직 작업 후 94년 10월29일, 뉴욕에서 미 전국에서 15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 NAKA의 창립총회를 가졌다.

NAKA는 1. 재미동포 권익 신장, 2. 한국 문화 알리기, 3. 타 민족과의 연대,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운동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며 미의회와 행정부가 대한반도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도록 교육, 홍보, 로비 활동 등을 주로 하고있다.

[NAKA 웹사이트 www.naka.org를 보면 미국 내 아시아 인은 전체 미국인 인구의 3.6%, 그 중 재미 한국 동포는 11%로 100만 여명에 이른다 한다. (2000년 미국 인구 통계) NAKA는 2001년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자주연합), 재미동포전국연합회(동포연합)와 재미민족운동단체협의회(민협)을 결성한 재미민족운동단체 3대주류의 하나이다.]

평통사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과 당부는?

평통사는 평화통일운동, 대미자주운동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던 당시 기치를 우뚝 세웠고 지금도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할 때마다 회원이 늘어나고 실천, 연구 활동이 더 활발한 것을 보고 감탄했으며 고맙게 생각했다. 계속 초심을 잃지 말고 매진해 주길 바란다.

(2006 년 6월, 선배님은 큰 교통 사고로 무의식에 이르시고 머리에 15 바늘땀을 하셔야 했다. 선배님은 그것을 더 주의하고 더 부지런하라는 신의 경고로 받아들이셨다고 한다. 죽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현재의 남은 삶은 보너스로 주어진 것으로 보시며 더 열심히, 감사히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한다. 선배님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회비와 후원금

중앙

[1월]

[대표/임원] 홍근수 배종렬 변연식 임종철 문홍주 김홍수 홍창의 강정구 김성윤 이일영

[후원회원] 서인옥 유영섭 이은혜 한희숙 정유철 박춘원 하정일 하정일 이현수 이충형 이광수 최문숙 이성호 최재영 서경숙 임동명

[특별회비] 홍근수 박순희 남미영 임종철 전영남 이일영

[후원금] 해피빈모금 향린교회 향린교회청년남신도회 (주)도프 새길교회 여호철

[2월]

[대표/임원] 홍근수 배종렬 변연식 임종철 문홍주 김홍수 홍창의 강정구 김성윤 이일영 이일영 박용일 장경욱

[후원회원] 서인옥 유영섭 이은혜 한희숙 정유철 박춘원 하정일 하정일 이현수 이충형 이광수 최문숙 이성호 최재영 서경숙 임동명

[특별회비] 김은아 박무식 임종철

[후원금] 해피빈모금 향린교회 향린교회청년남신도회 향린교회장년남신도회 향린교회회년여신도회 향린교회청년여신도회 (주)도프 새길교회 조현정 민가협 이영 김은아 가족

서울 평통사

[11월회원] 강유겸 고이지선 공동길 권영무 권혁문(2개월)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석제 김성윤(2개월) 김성준 김순정 김슬기 김영진 김은아 김종일 김종일 김종한 김지수 김지영 김진환 김채석(2개월) 김치섭 김현미 김현애 김현진 김형예 김화수 남미영 문석우 문성현 박규상 박석분 박정아 박정자 박종국 박종권 박종기 박종양 박준희 박희정 백차현 서광석(2개월) 서동빈 서영석(2개월)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윤희 손화정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오미정 위선남 유영재 유현규 윤영일 이정아 이민규 이병일 이선영 이성원(2개월) 이수정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인호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 이행복 이현규 이형수 이해영 이해진 박승렬 이호민 인민지 김종완 임동원 임보라 장남희 장도정 장성식 장속도 장윤지(2개월)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기열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조영래(2개월) 조영희 조요환(2개월) 조창현 지안나 최문희 최소영 최영환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황규금 황도연 황윤미

[11월후원회원] 강영욱 고경심 고은숙 곽상진 김나희(2개월) 김문영 김미영 김석순 김선희 김세옥 김승현 김용순 김유중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민호(2개월)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신재성 여혜숙 오행진 오혜경 윤민재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상근 이상희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연자 이영옥 이은영 이인희 이정태 이창호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정철호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선영(2개월) 허경자 홍만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12월회원] 강유겸(2개월) 고이지선(2개월) 공동길 권병길 권영무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성윤 김순정 김슬기 김은아 김종일 김종일 김종현 김종한 김지수

김지영 김진환 김채석 김치섭 김현미(2개월) 김현애 김현진 김형예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
남미영 문성현 박규상 박석분 박정아 박정자 박종국 박종권 박종기 박종양 박준희 박희정
백지은 백차현 서광석 서동빈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윤희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우미정(2개월) 위선남 유영재 유현규 윤영일 이경목(2개월) 이경아 이경옥 이민형 이병일
이수정 이수정(2개월)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인호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 이행복
이현규 이형수 이해영 이해진,박승렬 이호민 인민지 김종완(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장남희
장도정 장성식 장속도 장윤지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조영희 조요환 조창현 지안나 최문희 최소영 최영환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
현동식(10개월) 황규금 황도연 황윤미

[12월후원회원] 강양원 고경심 광상진 김기환(2개월) 김나희 김문영 김미영 김복희
김상중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2개월) 김세옥 김승현 김옥희 김용순 김유중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신재성 안지성
양창호 여혜숙 오행진(2개월) 오혜경 윤민재 윤영수(2개월)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상근 이상희 이소영 이수철(2개월) 이순혁 이승무이애용(2개월) 이연자 이
영옥 이은영 이인희 이정태 이창호 이해삼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정철호 천
상배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선영 한중현(2개월) 허경자 홍만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부천평통사

강용애 강용환 강혜선 광노충 구현모 권혜숙 김덕근 김민옥 김성근 김성훈 김성희 김숙희1
김숙희2 김인영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숙 노은하 노철성 문은정 박병분 박숙경 박
용섭 박은영 방정미 서경숙 서명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손석환 손종욱 신장호 신정길 양
난영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이경숙 이리나 이보영 이상수 이상원 이숙주 이
숙진 이영재 이옥화 이진혁 이해련 이현수 임숙영 임채경 임현순 장동환 장미숙 장인옥 장
혜영 전윤미 정경화 정상희 정용진 정창욱 조미옥 조민우 조영선 조지선 주명숙 주영일 주
정숙 지은희 지태봉 차복례 최경순 최은주 최혜정 최희준 허호인 현낙철 현지환 홍갑표 홍
제숙 홍진표 홍혜숙 황영신 황영희 황희중

인천평통사

[회원] 고영남 광준경 구완모 김강연 김경민 김경희 김대영 김백수 김병철 김보
희 김영억 김오섭 김의숙 김일희 김정녀 김정녀 김주숙 김중찬 김판태 김호영 김희겸 두현
진 문한나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박홍순 백요순 서경석 서경
석 서경혜 서동완 서성덕 서재훈 서화조 손선재 송연주 송영주 송재철 신동훈 신창균 신필
녀 신현범 심상봉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염성태 오수정 오현곤 오현곤 유정섭 유한수 윤인
중 윤화심 이경준 이무용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재윤 이종일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
실 이천직 이춘식 이현주 임희호 장광수 장근수 장금배 정동석 정만진 정송호 정유성 정재
훈 정한식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지정희 차광호 차광호 최문석 최장
수 최종락 홍종

[후원회원] 김금옥 김대인 김명숙 김명중 김상기 김정대 김창한 김형표 김희숙 문병호 박상태 박상호 박영민 서덕용 소병욱 송경평 신정순 안용원 오석근 오세훈 오종춘 오혜영 유미자 이거종 이덕규 이미경 이석기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은희 이진범 이형진 임경희 임병구 임용렬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유선 정윤엽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영미 최원식 하태준 홍학기

<2007년 특별후원 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금옥50,000 김병철50,000 김원식100,000 김일희신부500,000 김종오100,000 박순길 200,000 박영민50,000 삶이보이는창300,000 서동완200,000 서영선(강화유족회) 50,000 송정로(인천신문기자)100,000 신동훈300,000 신필녀50,000 이은직100,000 이준걸50,000 이춘식100,000 임병구100,000 정송호100,000 조남순100,000

※이상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이후 특별후원해 주신 분들은 다음호에 신도 록 하겠습니다.

대전충남평통사

강대훈 고양우 권선필 권인 김기수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지수 김홍업 김홍수 남영혜 류재중 문양로 문영국 박도신 박석진 박영칠 서영완 소종영 손용감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신성정 신현정 엄기문 여인철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운우 유장환 유한경 윤상렬 윤영덕 이경아 이번영 이영석 이요한 이재원 이종명 이지연 이춘자 이화자 임수규 전기룡 정성삼 정순희 정태순 정한섭 조보현 조부활 조성균 조주형 최만정 최정임 추교화 하일청 함필주 허민정

안동평통사

[11월회원] 정복순 윤지홍 최윤환 조선아 권영숙 최난희 권주원 강민석 배오직
[12월회원] 정복순 윤지홍 최윤환 권기찬 권영숙 최형석 최난희 권주원 강민석 배오직
김옥희

전북평통사

[11월] 김진호 김삼 김준근 김성훈 김양균 김미경 김보현 김순희 김종혁 김미주 김대송 김유순 김명근 김동욱 김동학 김경수 김아영 김효성 김연태 남현욱 노승민 라귀인 문규옥 문영용 배철환 박용호 박충례 박영천 박종대 박은경 박노엽 방용승 송상구 서정대 서현선 서동완 신용우 신현욱 신수철 장창완 장수나 장완수 전해숙 전호일 전호정 전재현 전병생 전용균 정태웅 정용용 정은주 정운승 조관철 조성욱 조성철 조성숙 조수미 안경숙 양지연 양종진 양정순 양재석 유은선 유재임 유희탁 오기주 오창규 오인빈 이금립 이종구 이재홍

이수정 이상호 이현수 이정현 이병식 이진규 이병기 이세우 이장우 이성교 이병주 이상호
이용숙 이명자 이창근 최명호 이창구 임재완 우훈식 유승기 여성구 채운석 최민옥 최수경
최선옥 최희숙 최인자 최응진 최영목 최성훈 최성용 추현주 황영하 황인철 황현정 허정길
허자영 현주익

[12월] 김진호 김 삼 김준근 김성훈 김양균 김형근 김보현 김순희 김종혁 김미주
김대송 김유순 김명근 김동욱 김경수 김아영 김효성 김연태 남현욱 노승민 라귀인 문영용
문규옥 배철환 박용호 박충례 박영천 박종대 박은경 박노엽 방용승 송상구 서정대 서현선
서동완 선진숙 신용우 신현욱 신수철 장창완 장수나 장완수 전해숙 전호일 전호정 전재현
전병생 전용균 정태웅 정용용 정은주 정운승 조판철 조성옥 조성철 조성숙 조수미 안경숙
양지연 양종진 양정순 양재석 유은선 유재임 유희탁 오기주 오창규 오인빈 이종구 이재홍
이수정 이상호 이현수 이금림 이정현 이병식 이병주 이진규 이병기 이세우 이장우 이경진
이성교 이상호 이용숙 이명자 이창근 최명호 이창구 임재완 우훈식 유승기 여성구 채운석
최민옥 최수경 최선옥 최희숙 최대준 최기봉 최인자 최응진 최영목 최성훈 최성용 추현주
황영하 황인철 황현정 황남인 허정길 허자영 현주익

광주전남평통사

[11월] 고희문 김광훈 김광훈 김덕현 김명훈 김미경 김용성 김희용 노준복 박석중
박승옥 배종열 서창호 안희만 오승주 유진이 이보라(김순중) 이보영 이윤옥 이재창 이철우
장관철 장현권 전영남 정길주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12월] 고희문 김광훈 김덕현 김명훈 김미경 김미경 김병모 김용성 김희용 노준복
박석중 박승옥 서창호 안희만 오승주 유진이 이대준 이보라(김순중) 이보영 이성열 이성열
이성원 이성원 이윤옥 이재창 이철우 장관철 전영남 정길주 정종득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경기남부모임

[11월] 이우곤 황재순 정인교 이은우 장창원 민영완 김효순 이수용
[12월] 이우곤 장창원 김효순 이수용 이종필

부산경남지역 회원

김건우

대구평통사 준비위원회

백창욱

평화통일연구소

[11월]

[이사회비] 김낙중 조헌정 김종수 강정구 김태준 임승계 신정길 홍근수 배종렬 홍영진 김경호

[후원회비] 김미령 김해영 강진희 이선엽 고효완 류승화 정향란 한양재 김숙연 성정혜 김기오 김미령 김기오 박복희 한혜영 조미향 민경숙 성경숙 이왕재 이범준 김창범

[특별회비] 강정구

[12월]

[이사회비] 조헌정 김종수 김선용 강정구 김태준 임승계 배종렬 홍근수 홍영진 김경호 신정길

[후원회비] 김해영 강진희 이선엽 고효완 류승화 정향란 한양재 김숙연 성정혜 김창범 김기오 박복희 조미향 민경숙 성경숙 이왕재 이범준

[특별회비] 조헌정

* CMS 출금 회원·후원회원만 반영한 지역도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본부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납부 계좌는 옆 페이지를 참고하세요.